

일반 성인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과 편견: 정신질환 유사 범죄 시나리오 활용

문난영¹, 김석선^{2,3*}, 길민지², 김다은¹

¹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²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³이화간호과학연구소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gainst People with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the General Public: Using crime scenarios without mental disorder labels

Nan Young Moon¹, Suk-Sun Kim^{2,3*}, Minji Gil², Daeun Kim¹

¹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²College of Nursing, Ewha Womans University

³Ewha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요약 본 연구는 대중매체 범죄 보도 내 정신질환 묘사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회복에 대한 인식, 사회적 편견,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정신질환자임을 유추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 유사 범죄 시나리오를 활용한 시나리오 기반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정신질환 유사 범죄 시나리오를 읽은 후 설문문에 응답하였다. 측정 도구는 독립변수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 회복에 대한 인식(Recovery Knowledge Inventory), 사회적 편견(Community Attitude toward the Mentally Ill),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 Scale)이고, 종속변수로 차별행동 척도(Opinion about Mental Illness)를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총 107명이었고, 자료 분석을 위해 기술 통계, 일원변량분석, 피어슨 상관관계, 위계적 회귀분석이 시행되었다. 피어슨 상관관계 결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r=.21, p=.030$), 사회적 편견 하부요인 중 권위주의($r=.37, p=.001$), 사회생활 제한($r=.69, p<.001$)과 양의 상관관계, 회복에 대한 인식($r=-.51, p<.001$), 사회적 거리감($r=-.60, p<.001$), 사회적 편견 하부요인 중 자비심($r=-.24, p=.015$)과 지역정신보건개념($r=-.65, p<.001$)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거리감($\beta=-.26, p=.001$)과 사회생활제한($\beta=.52, p<.001$)이 차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이 확인되었고, 모형의 설명력은 57.9%였다($F=21.79, p<.001$). 본 연구 결과 범죄 보도에서 범죄자가 정신질환자로 유추될 경우,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이 증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범죄 보도 시 범죄와 정신질환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정신질환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여 사건을 보도할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crime scenarios, without assigning mental disorder labels, on discriminatory behavior, fear of crime, recovery knowledge, social prejudice, and social distance against people with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the general public. Participants (N=107) completed self-reporting questionnaires which included factors related to fear of crime, recovery knowledge inventory, community attitude toward the mentally ill, social distance scale, and opinions about mental illness after reading a crime scen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WIN 27.0. We determined that discriminatory behavior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fear of crime ($r=.21, p=.030$), the authoritarianism of social prejudice ($r=.37, p=.001$), and social restrictiveness ($r=.69, p<.001$). Conversely, recovery knowledge ($r=-.51, p<.001$), social distance ($r=-.60, p<.001$), compassion of social prejudice ($r=-.24, p=.015$), and concepts in community mental health ($r=-.65, p<.001$) were significantly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discriminatory behavior.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social life restrictions and social distance had a significant explanatory power (57.9%) for the variance in discriminatory behavior.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media coverage indirectly contributes to discriminatory behavior against mental disorders by portraying a connection between mental disorders and violent traits. We strongly suggest that considering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 mass media should minimize negative portrayals of mental disorders.

Keywords : Mental Disorders, Mass Media, Criminals, Criminal Behavior, Social Discrimination

*Corresponding Author : Suk-Sun Kim(Ewha Womans University)

email: suksunkim@ewha.ac.kr

Received October 27, 2022

Revised December 19, 2022

Accepted January 6, 2023

Published January 31, 202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21년 국내 정신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27.8%로 성인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7.2%로 2016년 이용률 22.2%보다 감소하였으며, 국외(미국 43.1%, 캐나다 46.5%, 호주 34.9%)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회복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행동은 정신질환의 조기 치료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발병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의 경우 증상이 악화되어 자·타해 위험성이 높아지고 강력 범죄 등 사건·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이 시급하다[3].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으로 대중매체가 주목을 받으면서[4], 대중매체에서 정신질환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는지 확인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 언론의 정신질환 보도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자는 의지가 박약하고 자기 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폭력적인 범죄자로 묘사되고 있었으며[5], 국외 대중매체에서도 정신질환자를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었다[6,7]. 또한, 정신질환의 예방이나 치유와 관련된 긍정적인 기사보다 정신질환자의 사건, 관리, 위험 중심의 부정적인 기사의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9].

전체 강력 범죄에서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강력 범죄의 비율이 약 1.89%임에도 불구하고[10],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범죄 보도 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묘사하는 언론의 보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과 편견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5-7] 대중에게 정신질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불러일으킨다[8,9]. 더 나아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정서는 정신질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회피할 뿐 아니라 강압적이고 적대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차별행동을 높일 수 있다[8,9,11].

대중매체에서 강력 범죄를 보도할 때, 정신질환에 대해 언급하고 묘사하는 것은 정신질환과 범죄가 연관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만들 수 있다[12,13].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언론이나 신문 기사의 보도 내용을 분석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정신질환자

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중매체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제 대중매체의 보도를 재구성한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대중매체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과 차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연구들이 시행되고 있다[14,15]. 국외에서 조현병 등 정신질환 범죄자와 일반 범죄자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범죄 위험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확인한 결과,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 추후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되고 있었다[12]. 또한, 국내에서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정신질환자와 일반범죄자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비교한 결과, 조현병은 다른 질환에 비해 치료에 대한 기대가 낮고, 일반범죄자보다도 높은 두려움과 사회적 거리감을 나타냈다[15].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시나리오에서는 범죄자가 정신질환자임을 직접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참여자가 정신질환을 범죄와 연관된 속성으로 인식하도록 한 후 설문 조사를 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 기사를 읽은 일반인은 이후 정신질환과 관련이 없는 범죄 기사를 읽더라도 정신질환을 연상하며, 정신질환이 폭력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고정관념을 갖는 경향이 있다[16]. 그러나 실제 정신질환자가 아닌 범죄자의 범죄 기사에서 문맥을 통해 범죄자가 정신질환자라는 것이 유추될 때,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실제 보도된 사건을 각색한 유사 범죄 시나리오를 읽도록 제공한 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과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회복에 대한 인식, 사회적 편견,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실제 보도된 사건을 각색한 정신질환 유사 범죄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대중매체의 범죄 보도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 성인의 차별행동과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회복에 대한 인식, 사회적 편견,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정신질환 유사 범죄 시나리오를 읽은 연구대상자의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두려움, 회복에 대한 인식, 사회적 편견, 사회적 거리감, 차별행동의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두려움, 회복에 대한 인식, 사회적 편견, 사회적 거리감, 차별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정신질환 유사 범죄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대중매체의 범죄 보도 내 정신질환의 간접적인 묘사가 일반 성인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과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회복에 대한 인식, 사회적 편견,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시나리오 기반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 중인 일반 성인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만 19세에서 65세 이하의 성인으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G^*power 3.1.9.2.[17]를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수준에서 5개의 독립변수를 고려하여 중간 효과 크기 .15 [18], 유의 수준 $\alpha = .05$, 통계적 검정력 $(1-\beta) = .80$ 으로 계산한 결과 필요한 표본의 크기는 92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총 11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충분한 3부를 제외하고 총 107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2.3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No.132-6)을 받은 후 시행되었다. 일반 성인과 정신건강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사 범죄 시나리오 또는 정신질환자의 범죄 시나리오를 제공한 후 자기 보고식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범죄 시나리오를 활용한 연구 결과는 학술지에 게재되었으며[19], 본 연구는 유사 범죄 시나리오를 제공한 후 수집된 107명 일반 성인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는 회사 및 기관을 편의 표집하여 각 기관장 및 상위 책임자에게 연구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또한 온라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모집된 대상자에게는 온라인 메일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 조사 주소를 발송하였다. 대상자는 온라인 설문지의 첫 화면에서 연구의 목적과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읽고, 하단의 연구 참여 동의에 확인 표시를 한 후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정신질환 유사 범죄 시나리오가 제시되었으며, 참여자는 시나리오를 읽은 후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 작성은 약 20분이 소요되었다.

2.4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시나리오와 구조화된 자기 보고식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신질환 유사 범죄 시나리오는 A4 한 장 분량이며, 일반적 특성, 범죄에 대한 두려움, 정신질환자의 회복에 대한 인식, 사회적 편견, 사회적 거리감, 차별행동으로 이루어진 총 95문항의 설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연구 도구들은 사전에 원도구 개발자와 번역자에게 이메일로 사용 승인을 받았다.

2.4.1 정신질환 유사 범죄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신질환 유사 범죄 시나리오는 먼저 뉴스와 인터넷 자료 등을 참고하여 실제 범죄 사례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정신질환자 범죄 시나리오에는 [19] 조현병이라는 진단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특징적인 이상행동, 환경, 피해적 사고, 치료 유무 등의 정신질환 병력이 범죄 사실과 함께 시나리오 내 직접적으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정신질환 유사 범죄 시나리오에서는 직접적으로 정신질환 유무를 언급하지 않고, 범죄자를 자기 관리가 게으르며, 타인에 대한 폭력적인 태도와 생각이 있다고 묘사하였다.

각색한 시나리오 내용이 연구 목적에 부합하고 타당하지 정신간호학 교수 1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 사회복지학 교수 1인, 임상전문가 3인(정신전문간호사 1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인)에게 검토받았다. 수렴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수정하여 내용 타당도를 높였다. 예를 들면, 초안에서 'A씨는 평소 기본적인 일상생활관리를 게을리하고' 라는 문장에서 평소와 일상 생활관리 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

영하여 'A씨는 1년 전부터 잘 씻지 않는 등의 기본적인 자기 관리를 게을리하고'로 내용을 명확하게 수정하였다.

2.4.2 범지에 대한 두려움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범지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Ferraro와 Lagrange[20]이 개발하여, Cha[21]가 번안한 범지에 대한 두려움 척도(Fear of Crime)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범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Cha[22]의 연구의 Cronbach's α 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2.4.3 회복에 대한 인식

정신질환자의 회복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Bedregal, O'Connell과 Davidson[23]이 개발하고 Kim 등[24]이 번안하고 수정 및 보완한 회복에 대한 인식 척도(Recovery Knowledge Inventory, RKI)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 5점 척도로,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질환자가 회복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Bedregal 등[23]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1이었고, Kim 등[2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6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0이었다.

2.4.4 사회적 편견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측정하기 위해 Taylor와 Dear[25]가 개발하고 Lee 등[26]이 번안, Kim과 Kim[27]이 수정 및 보완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Community Attitude toward the Mentally Ill, CAMI) 척도를 사용하였다. CAMI는 4가지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권위주의 10문항, 자비심 10문항, 사회생활제한 10문항, 지역정신보건개념 10문항 총 40문항으로 5점 척도로 측정된다. 각 하위문항은 정신질환에 대해 각각 5개의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반영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5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1점으로 권위주의, 사회생활제한, 자비심, 지역사회개념의 부정적 문항을 역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질환자에게 더 권위주의적이며 자비심이 많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생활에 더 제한적이고, 지역사회 접근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Taylor와 Dear[2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권위주의 .68, 자비심 .76, 사회생활제한 .80, 지역정신보건개념 .88로 나타났으며, Kim 등[2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권위주의 .57, 자비심 .64, 사회생활제한 .72, 지역정신보건개념 .84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권위주의 .69, 자비심 .64, 사회생활제한 .85, 지역정신보건개념 .83 이었다.

2.4.5 사회적 거리감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확인하기 위해 Hand와 Tryssenaar[28]이 개발하고 Ryu[29]가 번안하여 수정 및 보완한 사회적 거리감 척도(Social Distance Scale, SDS)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7문항으로 4점 척도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이 되며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Ryu[29]의 연구에서 조현병 예시문의 Cronbach's α 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4이었다.

2.4.6 차별행동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Cohen과 Struening[30]이 개발하고, Seo 등[31]이 사용하며, Kim 등[27]이 수정 및 보완한 차별행동(Opinion about Mental Illness, OMI)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3문항으로 5점 척도로 측정되고, 각 문항은 '매우 아니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이 된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등[2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7.0 통계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 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별행동의 차이는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로 분석하였다. 범지에 대한 두려움, 회복에 대한 인식, 사회적 편견, 사회적 거리감이 차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3.1.1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4.17±7.27세로, 여성이 70명(65.4%)으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 95명(88.8%)이었으며, 기혼자가 63명(58.9%), 직장인이 55명(51.4%)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자 접촉 경험은 '경험 있음'이 66명(61.7%)으로 가장 많으며 정신질환자 접촉 감정은 68명(63.6%)이 '부정적'이라고 하였다. 범죄 피해 경험에 '없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92명(86%)이었다.

3.1.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별행동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별행동의 차이를 ANOVA분석 후 Scheffé test로 사후 검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나이($F=3.97, p=.022$), 직업($F=4.68, p=.011$), 정신질환자 접촉 감정($F=-4.36, p<.001$), 범죄 피해 경험($F=-3.57, p=.001$)에 따라 차별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07)

Characteristics	Category	n(%) or M±SD	Discriminatory behavior		
			M±SD	t/F(p) Scheffé's	
Age(yr)	≥29	27 (25.2)	3.22±.90	3.97 (.022)	
	30-39	57 (53.3)	3.61±.75		
	40≤	23 (21.5)	3.15±.71		
	34.17±7.27				
Gender	Male	37 (34.6)	3.38±.92	-.33 (.740)	
	Female	70 (65.4)	3.43±.75		
Educational Background	≤ High school	12 (11.2)	3.15±.97	-1.22 (.225)	
	≥ college	95 (88.8)	3.45±.78		
Marital Status	Single	44 (41.1)	3.27±.80	-1.57 (.120)	
	Married	63 (58.9)	3.51±.80		
Religion	Yes	62 (57.9)	3.36±.85	-.87 (.384)	
	No	45 (42.1)	3.50±.74		
Job	Housewife ^a	18 (16.8)	3.83±.77	4.68 (.011) a)c	
	Employee ^b	55 (51.4)	3.44±.79		
	Other ^c	34 (31.8)	3.14±.76		
Experience in contact with mentally ill people	No	41 (38.3)	3.52±.80	1.03 (.305)	
	Yes	66 (61.7)	3.35±.81		
Emotions in contact with mentally ill people	positive	39 (36.4)	3.00±.72	-4.36 (<.001)	
	negative	68 (63.6)	3.65±.76		
Criminal Damage Experience	No	92 (86.0)	3.31±.78	-3.57 (.001)	
	Yes	15 (14.0)	4.07±.69		

사후 분석 결과, 나이에서 그룹 간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30-39세의 차별행동 점수가 3.22±.90점으로 가장 높았다. 직업에서는 주부 집단이 3.83±.77점으로 기타 집단보다 차별행동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정신질환자 접촉 감정이 부정적인 집단(3.65±.76점)과 범죄 피해 경험이 있는 집단(4.07±.69점)이 차별행동 점수가 높았다.

3.2 주요 변수의 정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 회복에 대한 인식, 사회적 편견(권위의식, 자비심, 사회생활제한, 지역정신보건개념), 사회적 거리감, 차별행동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및 점수 범위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Degree of Variable (N=107)

Variable	Mean±SD	Min-Max	Range
Fear of Crime	2.08±.58	1-4	1-4
Recovery Knowledge Inventory	3.13±.28	2.2-4	1-5
Attitude			
Authoritarianism	36.13±4.52	25-50	10-50
Benevolence	23.38±4.33	14-33	10-50
Social restrictiveness	31.43±6.12	12-49	10-50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27.44±5.74	11-42	10-50
Social Distance	1.74±.64	1-4.43	1-5
Discrimination	3.41±.81	1.54-5	1-5

3.3 연구변수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편견, 회복에 대한 인식, 사회적 거리감, 차별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Table 3). 대상자의 차별행동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r=.21, p=.030$), 사회적 편견 하부요인 중 권위의식($r=.37, p=.001$)과 사회생활제한($r=.69,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회복에 대한 인식($r=-.51, p<.001$), 사회적 거리감($r=-.60, p<.001$), 사회적 편견 하부요인 중 자비심($r=-.24, p=.015$)과 지역정신보건개념($r=-.65, p<.001$)은 차별행동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107)

Variable	1	2	3				4	5
			3-1	3-2	3-3	3-4		
1. Fear of Crime	1							
2. Recovery Knowledge Inventory	-.05 (.596)	1						
3. Attitude			1					
3-1. Authoritarianism	.05 (.618)	-.43 ($<.001$)	1					
3-2. Benevolence	.08 (.423)	.27 (.005)	-.56 ($<.001$)	1				
3-3. Social restrictiveness	.04 (.699)	-.58 ($<.001$)	.62 ($<.001$)	-.57 ($<.001$)	1			
3-4.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24 (.012)	.54 ($<.001$)	-.57 ($<.001$)	.46 ($<.001$)	-.81 ($<.001$)	1		
4. Social Distance	-.21 (.032)	.31 (.001)	-.27 (.004)	.18 (.072)	-.51 ($<.001$)	.56 ($<.001$)	1	
5. Discrimination	.21 (.030)	-.51 ($<.001$)	.37 (.001)	-.24 (.015)	.69 ($<.001$)	-.65 ($<.001$)	-.60 ($<.001$)	1

3.4 차별행동에 미치는 영향

차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Table 4. Influence of Discriminatory Behavior (N=107)

Variable	B	β	t	p
(Constant)	2.55		1.66	.100
Fear of Crime	.02	.10	1.45	.149
Recovery Knowledge Inventory	-.39	-.14	-1.72	.089
Attitude				
Authoritarianism	-.01	-.06	-.67	.506
Benevolence	.03	.14	1.68	.095
Social restrictiveness	.07	.52	4.02	$<.001$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01	-.08	-.69	.492
Social Distance	-.33	-.26	-3.37	.001

F=21.79 $\Delta R^2=.579$,
R² change=.045, p<.001

먼저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행하기 전, 독립변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Durbin-Watson 2.038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과 자기상관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편견, 회복에 대한 인식, 사회적 거리감을 차례로 투입한

결과, 사회생활제한($\beta=.52$, $p<.001$), 사회적 거리감($\beta=-.26$, $p<.001$)이 차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57.9%였다($F=21.79$, $p<.001$).

4. 논의

본 연구는 실제 보도된 사건을 각색한 정신질환 유사 범죄 시나리오를 일반 성인에게 제공한 후, 시나리오를 읽은 일반 성인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과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회복에 대한 인식, 사회적 편견,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대중매체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정신질환자 인식개선 및 정책 개발 전략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정신질환 유사 범죄 시나리오를 읽은 대상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 점수는 3.41 ± 0.81 점으로 국내 선행연구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에 대해 동일한 도구로 측정된 일반인 3.17점, 교사 2.90점 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27,31]. 정신질환명이 명시된 범죄 시나리오를 읽은 대상자에게 측정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 점수는 3.64점[19]으로, 본 연구와 유사하게 차별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 사건 보도의 맥락에서 특정한 정신질환명이나 정신질환을 유추할 수 있는 증상을 언급하는 사례 모두 정신질환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고정관념을 부추기게 만든 결과로 사료 된다[16]. 이는 범죄 기사에서 정신질환이 연상되는 유사한 증상만 표현이 되어도 정신질환자는 강력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이 불러일으켜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중매체에서는 범죄 보도 시 범죄자를 정신질환자와 유사하게 묘사하는 것을 지양하며, 범죄 보도 시 정신질환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증상이나 자극적인 용어를 배제하고, 정신질환자의 범죄 보도는 의학적 정보에 기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을 제언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을 살펴본 결과, 차별행동은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주부 집단이 $3.83 \pm .77$ 점으로 무직 또는 학생 등이 포함된 기타 집단보다 차별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한 방송매체 이용 행태조사에 따르면[32] 주부들은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TV 시청률 96.1%, 뉴스 보도 시청률 77.9%로 나타나 방송 프로그램과 뉴스 보도를 가장 많

이 접하는 집단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주부 집단이 대중매체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여 차별행동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대중매체를 통해 정신질환자와 간접 접촉 경험을 하였을 때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더욱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33]. 이처럼 대중매체에서 기사나 뉴스에서 정신질환자가 아님에도 범죄자를 정신질환자로 묘사하는 것은 대중에게 정신질환자는 회복이 불가능하고 우리 사회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존재라는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켜 대중들의 불안과 편견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13,19] 정신질환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보도를 할 것을 권고한다.

본 연구에서 변수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편견 하위요인 중 권위의식과 사회생활제한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은 회복에 대한 인식, 사회적 편견 하위요인 중 자비심, 지역정신보건개념, 사회적 거리감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위의식이 높고, 이들에게 사회생활을 제한한다고 생각할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정신질환자가 회복될 수 있다고 믿으며, 온정적이고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태도와 정신질환자에게 사회적 거리감을 낮게 느낄 때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도 낮아짐을 의미한다. 선행연구[27]에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높은 차별행동이 권위의식, 사회생활제한과 관련이 있으며, 낮은 차별행동이 자비심, 지역정신보건개념이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사회적 거리감과 사회생활제한이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감은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질환자와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신질환자에게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생각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낮추는데 방해 요인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33]. 선행연구에서는 탈북자, 다문화가정, 성소수자, 신체장애인, 정신질환자 집단 중에서 정신질환자와 친구나 이웃, 동료로 관계 맺는 것을 가장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34], 이는 정신질환자가 소수집단 중 가장 높은 편견과 차별을 받는 집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은 대중이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와의 공존을 거부

하며, 사회적 격리를 요구하도록 하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침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35] 대중에게 정신질환자와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정신질환자의 삶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증재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 유사 범죄 시나리오를 사용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간접 경험을 가지게 하여 사회적 거리감을 높여 차별행동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1]. 범죄의 원인을 정신질환으로 여길 때, 정신질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발생하여 대중들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증가시켜 차별행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사료된다[13,29,36]. 이는 대중매체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간접적으로 접하는 것이 차별행동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대중매체는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왜곡된 인식 형성을 경계하고, 언론 보도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생활제한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사회생활제한이란 정신질환자가 사회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 사회적 규제를 통해, 사회적 기능을 제한해야 한다는 인식을 의미한다[27]. 대중매체에서 범죄자에 대한 위험성과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여 반복적이고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정신질환자가 범죄자라는 또는 범죄를 쉽게 저지할 수 있는 폭력적인 사람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대중들에게 고착시킨다[5,13,21]. 선행연구에서도 정신질환의 폭력적 성향의 증상이 범죄로 이어져 사회로부터 격리를 해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7]. 결과적으로 대중은 사회 안전망 형성을 위해 정신질환자들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로 인해 차별행위가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중매체에서 범죄와 정신질환을 간접적으로 연계하여 보도하는 것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중매체는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왜곡된 인식을 생성하는 것을 경계하고, 언론 보도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기자나 언론인들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쇄신과 공공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정신질환 유사 범죄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대중매체 범죄 보도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대중매체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정신질환 유사 범죄와 일반 범죄 시나리오를 비교하여, 정신질환자의 편견과 차별행동이 정신질환 언급 유·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시나리오 전·후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 결과 대중매체에서 정신질환자를 범죄자로 묘사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중매체는 정신질환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병이며, 치료와 주변의 도움을 통해 회복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긍정적인 사례를 보도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일반인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얻기 때문에 부정적인 대중매체의 보도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정신질환자와 직접적이고 잦은 접촉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낮추었다는 연구 결과를 비추어 볼 때[38],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것이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행동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가 대중과 소통할 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더 나아가 정신질환자의 직접 접촉이 대중의 편견과 차별행동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보도할 때는 객관적인 의학적 정보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어야 한다[3,5,8,9,36]. 영국의 경우 보건부 및 코믹리프트(Comic Relief)의 재정 지원을 통해 정신건강 관련 뉴스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배포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보건복지부를 통해 정신질환자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해 정신건강 언론 보도 권고기준을 배포하였다. 배포된 보도 기준을 언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정신질환 유사 범죄 시나리오를 통해 일반 성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대중매체 범죄 보도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사회적 거리감과 사회생활제한이 차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 성인이 기사의 문맥을 통해 범죄자가 정신질환자라고 유추할 경우, 정신질환자

와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맺기가 어렵고, 정신질환자는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기에 위험한 존재라고 받아들여져 사회적 규제와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는 차별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중매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 성인의 차별행동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거리감과 사회생활제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한다. 나아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범죄 보도 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중매체는 범죄자와 정신질환과의 연관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신건강 언론 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여 사건을 보도해야 한다는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Y. M. Lee, National Mental Health Survey 2021, National Mental Health Survey,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Seoul: Korea, pp.1-209.
-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epidemiological survey of mental disorders in 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tatistics [Interne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cited 2022 Aug 11], Available from: http://www.mohw.go.kr/react/gm/sgm0701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80701&CONT_SEQ=357654 (accessed Aug. 20, 2022)
- [3] J. I. Park, M. Jeon, "The stigma of mental illness in Korea",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55, No.4, pp.299-309, 2016. DOI: <https://doi.org/10.4306/jknpa.2016.55.4.299>
- [4] Y. K. Yang, K. Y. Lee, J. H. Hyun, J. W. Paek, S. W. Kim, et al, Fact-finding survey to check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national report on mental disability, Surve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Seoul: Korea, pp.1-587.
- [5] H. J. Paek, H. J. Cho, J. H. Kim, "Content analysis of news coverage on stigma and attribution regarding mental illnes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 Vol.61, No.4, pp.7-43, 2017. DOI: <https://doi.org/10.20879/kjics.2017.61.4.001>
- [6] A. R. Gwarjanski, S. Parrott, "Schizophrenia in the news: the role of news frames in shaping online reader dialogue about mental illness", *Health Communication*, Vol.33, No.8, pp.954-961, 2018. DOI: <https://doi.org/10.1080/10410236.2017.1323320>
- [7] Z. Ma, "How the media cover mental illnesses: a review", *Health Education*. Vol.117, No.1, pp.90-109, 2017. DOI: <https://doi.org/10.1108/HE-01-2016-0004>

- [8] E. J. Kim, J. H. Kang, "Comparison of news based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mental disorders of murder offenders: Based on the news value and frame of articles on online portal sites",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31, No.4, pp.107-134, 2020.
DOI: <http://doi.org/10.16881/jss.2020.10.31.4.107>
- [9] H. J. Song, S. S. Kim,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schizophrenia through newspaper articl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6, pp.375-384,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6.375>
- [10] H. S. Bae, S. J. Lee, S. W. Kang, G. K. Kim, J. C. Kim, et al, 2021 Crime white paper, National crime survey, Institute of Justice, Korea, pp.1-650.
- [11] J. Y. Lee, B. S. Jung, "The media's influence on public perception of crim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Vol.25, No.3, pp.191-217, 2016.
DOI: <https://doi.org/10.21181/KJPC.2016.25.3.191>
- [12] M. Varshney, A. Mahapatra, V. Krishnanl, R. Gupta, K. S. Deb, "Violence and mental illness: what is the true story?",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Vol.70, No.3 pp.223-225, 2016.
DOI: <https://doi.org/10.1136/jech-2015-205546>
- [13] H. J. Kim, S. J. Park, C. M. Song, M. Song, "Text mining driven content analysis of social perception on schizophrenia before and after the revision of the terminology", *Journal of the Korean Literature and Information Society*, Vol.53, No.4, pp.285-307, 2019.
DOI: <https://doi.org/10.4275/KSLIS.2019.53.4.285>
- [14] C. Nee, C. Witt, "Public perceptions of risk in criminality: the effects of mental illness and social disadvantage", *Psychiatry Research*, Vol.209, No.3, pp.675-683, 2013.
DOI: <https://doi.org/10.1016/j.psychres.2013.02.013>
- [15] K. W. Park, M. K. Seo, "A study of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 with mental illness of college students: comparison with the type of AIDS, prisoner case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28, No.4, pp.383-408, 2012.
- [16] G. Chan, P. T. Yanos, "Media depictions and the priming of mental illness stigma", *Stigma and Health*, Vol.3, No.3, pp.253-264, 2018.
DOI: <https://doi.org/10.1037/sah0000095>
- [17] F. Faul, E. Erdfelder, A. Buchner, A.-G. Lang,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41, No.4, pp.1149-1160, 2009.
DOI: <http://doi.org/10.3758/BRM.41.4.1149>
- [18] H. Kang, K. Yeon, S. T. Han, "A review on the use of effect size in nursing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45, No.5, pp.641-649, 2015.
DOI: <http://doi.org/10.4040/jkan.2015.45.5.641>
- [19] N. Y. Moon, S. S. Kim, M. J. Gil, "Factors associated with discriminatory behavior toward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38, No.3, pp.161-187, 2018.
DOI: <http://doi.org/10.15709/hswr.2018.38.3.161>
- [20] K. F. Ferraro, R. L. Grange, "The measurement of fear of crime", *Sociological Inquiry*, Vol.57, No.1, pp.70-97, 1987.
DOI: <https://doi.org/10.1111/j.1475-682X.1987.tb01181.x>
- [21] H. J. Cha, "Testing a social psychological model on women's fear of crime", *Korean Criminal Psychology Study*, Vol.3, No.1, pp.169-197, 2007.
- [22] H. J. Cha, W. I. Jung, "The psychology of fear of crime and the community environmen", *Korean Criminal Psychology Review*, Vol.9, No.2, pp.169-191, 2013.
- [23] L. E. Bedregal, M. O'Connell, L. Davidson, "The recovery knowledge inventory: assessment of mental health staff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recovery",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Vol.30, No.2, pp.96-103, 2006.
DOI: <https://doi.org/10.2975/30.2006.96.103>
- [24] S. Kim, R. Keum, H. L. Kim, S. E. Kim, "The perception of recovery and job satisfaction in community mental health profession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19, No.2, pp.163-172, 2010.
- [25] S. M. Taylor, M. J. Dear, "Scaling community attitudes toward the mentally ill", *Schizophrenia Bulletin*, Vol.7, No.2, pp.225-240, 1981.
DOI: <https://doi.org/10.1093/schbul/7.2.225>
- [26] J. H. Lee, C. S. Rhee, T. Y. Hwang, K. S. Han, Y. M. Lee, "Community attitude toward the mentally ill in Suseo-Ilweon community", *Bulletin of Yong-In Psychiatric Institute*, Vol.3, No.2, pp.188-199, 1996.
- [27] G. H. Kim, K. H. Kim, "The teachers' attitudes, discrimination and causes of prejudice towards people with mental illnes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22, No.2, pp.97-106, 2013.
DOI: <http://doi.org/10.12934/jkpmhn.2013.22.2.97>
- [28] C. Hand, J. Tryssenaar, "Small business employers' views on hiring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Vol.29, No.3, pp.166-173, 2006.
DOI: <https://doi.org/10.2975/29.2006.166.173>
- [29] S. Ryu, "Is it possible that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are reintegrates into our communities?: the effect of social distanc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Vol.29, No.1, pp.49-6, 2010.
- [30] J. Cohen, E. L. Struening, "Opinions about mental illness in the personnel of two large mental hospitals",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64, No.5, pp.349-360, 1962.
DOI: <https://doi.org/10.1037/h0045526>
- [31] M. K. Seo, J. N. Kim, M. K. Lee, "A survey on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gainst people with mental illnes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p.1-234, 2008.

- [32] Y. C. Jung, Y.W. Kim, 2021 Broadcasting Media Usage Behavior Survey,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Gwacheon: Korea, pp.1-476.
- [33] G. Ho, H. Jung, Y. Jeon, M. Song, S. Shimamori, H. Yu, "An investigation for the influence of people's contact experiences with mental patients on their prejudice: pursuing the mediating effect of a sense of social distance",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49, No.4, pp.79-102, 2021.
DOI: <http://doi.org/10.24301/MHSW.2021.12.49.4.79>
- [34] S. Ryu, "The relationships among contact, threat, and prejudice toward the minority group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31, No.4, pp.225-245, 2017.
DOI: <http://doi.org/10.21193/kispp.2017.31.4.011>
- [35] M. H. Lee, M. K. Seo, S. Yu, "Anti-stigma effect of a consumer-initiated contact program contact in mental illnes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70, No.1, pp.117-142, 2018.
DOI: <http://doi.org/10.20970/kasw.2018.70.1.005>
- [36] A. M. Ross, A. J. Morgan, A. F. Jorm, N. J. Reavley, "A systematic review of the impact of media reports of severe mental illness on stigma and discrimination, and interventions that aim to mitigate any adverse impact",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Vol.54, No.1, pp.11-31, 2019.
DOI: <https://doi.org/10.1007/s00127-018-1608-9>
- [37] S. Son, E. Park,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mental disorders in the clinical practice of psychiatric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29, No.4, pp.285-295, 2020.
DOI: <https://doi.org/10.12934/jkpmhn.2020.29.4.285>
- [38] E. K. Han, Y. J. Suh, "Effects of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clinical practice on nursing students' discrimination behavior, attitude, and social distance toward mental illnes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2, pp.59-72, 2020.
DOI: <http://doi.org/10.22251/ilcci.2020.20.2.59>

문 난 영(Nan Young Moon)

[정회원]



- 2018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과 (간호학 석사)
- 202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과 (간호학 박사수료)
- 2007년 1월 ~ 현재 : 지역사회전환시설 늘푸른집 사무국장

<관심분야>

시나리오 연구, 지역사회정신간호, 정신질환자의 편견과 차별, 정신질환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김 석 선(Suk-Sun Kim)

[정회원]



- 2000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과 (간호학 석사)
- 2008년 8월 : College of Nursing, University of Arizona (간호학 박사)
- 2011년 3월 ~ 2012년 6월 : North Carolina Centr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2012년 8월 ~ 2014년 2월 : George Maso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2014년 3월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관심분야>

영성과 가족 정신건강, 대학생 및 중년부부 우울 자살 예방 온라인-코칭 혼합 프로그램 개발, 직장인 우울 자살예방 메타버스 프로그램 개발, 머신러닝 기반 우울 불안 예측 및 분석

길 민 지(Minji Gil)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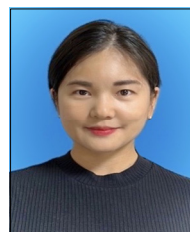
- 2016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과 (간호학 석사)
- 202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과 (간호학 박사)
- 2022년 4월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박사후연구원

<관심분야>

빅데이터, 머신러닝, 성장혼합모형, 우울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인의 정신건강

김 다 은(Daeun Kim)

[정회원]



- 202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과 (간호학 석사)
- 202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과 (간호학 박사수료)
- 2022년 3월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원

<관심분야>

우울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영성일기 프로그램, 영성과 정신건강, 부부 및 가족, 암환자의 정신건강